



즉시 배포용: 2018년 7월 27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국가 최초로 C형 간염 근절을 위한 전략 발표

‘조용한 전염병’을 종식하는 계획에서 주에 자문을 제공할 근절 대책본부(Elimination Task Force) 설립

C형 간염 근절을 위한 사전 계획에 초기 500만 달러 할당, 치료 역량을 확대하고 치료에 대한 보험 장벽 제거

국가 최초로 유해 감소 서비스에 대한 메디케이드(Medicaid) 배상 구축

주사기 교환 접근의 확대를 위한 규정 창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앞으로의 계획을 이행함에 따라 주에 자문을 제공할 C형 간염 근절 대책본부(Hepatitis C Elimination Task Force)의 설립을 포함하여 C형 간염(Hepatitis C)을 없애기 위한 국가의 첫 번째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 근절 노력은 C형 간염 치료제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뉴욕 주민들을 C형 간염 예방, 검진 및 치료 서비스에 연결하는 프로그램을 확장하여, C형 간염의 확산을 종식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C형 간염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Hepatitis C, HCV)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간 질환으로 20만 명 이상의 뉴욕 주민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형 간염을 근절하려는 이 총체적인 국가 최초의 접근법은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전염병을 종식하기 위한 우리의 지속적인 노력을 모델로 하고 있으며 마약 중독과 싸우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우리 중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의 건강을 향상할 것입니다. 우리는 뉴욕주에서 C형 간염을 종식할 것입니다.”

2007년 이후로, 뉴욕시 이외의 주에서 C형 간염 바이러스 관련 사망 건수는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HIV) 관련 사망 건수를 초과했습니다. 또한, 가장 일반적인 위험요인인 주입 약물의 사용에 따른 오피오이드 확산은 새로운 C형 간염 사례를 증가시켰습니다. 주는 약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현실적인 방법으로 그들의 상황을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안전한 사용, 관리된 사용 및 절제를 비롯하여 다양한 도구를 포함하는 “유해 감소” 전략을 전개할 것입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형 간염 예방을 위한 이 국가 최초의 계획은 치료법을 확대하고 약에 대한 접근을 늘리기 위한 기금을 제공할 것입니다. 20만 명이 넘는 뉴욕 주민들이 치료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질환을 가진 채로 살고 있습니다. 뉴욕은 모든 뉴욕 주민이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 치료에 필요한 접근할 수 있도록 서비스에 투자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C형 간염 근절 대책본부(Hepatitis C Elimination Task Force)

2017년 주와 국가 지도자들은 올버니에서 국가의 최초로 C형 간염 근절 회담(Elimination Summit)을 개최했으며, 여기에 보건 전문가, 옹호자 및 지역사회 이해 관계자들이 모여 뉴욕주의 C형 간염 근절에 대한 합의 성명을 작성했습니다. Cuomo 주지사가 오늘 발표한 새로운 C형 간염 근절 대책본부(Hepatitis C Elimination Task Force)는 이 합의 성명을 토대로, 앞으로 C형 간염을 근절하기 위한 계획을 이행함에 따라 전문가의 조언을 주에 제공할 것입니다.

새로운 대책본부는 예방, 관리와 치료 접근, 검사와 관리 연결, 감시와 데이터 및 통계, 사회적 결정 요인을 포함하는 우선순위 영역에 중점을 두는 운영 위원회(Steering Committee)와 5개의 소위원회로 구성될 것입니다. 소위원회 위원은 소비자, 지역사회 구성원, 서비스 제공자, 연구원, 유해 감소 및 사회 복지 서비스 제공자, 지급인, 공중 보건 직원이 포함될 것입니다.

C형 간염 프로그램에 대한 기금 증가

주지사는 C형 간염 약물치료에 대한 접근을 늘리기 위해 유해 감소 환경에서 교육, 환자 탐색, 관리 및 치료 프로그램과 같은 C형 간염 서비스를 위해 500만 달러 규모의 새 기금을 발표합니다.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HIV) 환자 5명 중 1명이 C형 간염에도 감염되어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치료를 통해 환자의 90% 이상이 완치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직접 작용 항바이러스제는 부작용이 거의 없으며, 간 이식, 간 경화증, 간부전, 간암 혹은 사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C형 간염 사례의 분포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2006년에 보고된 만성 C형 간염의 사례는 “베이비 붐 세대” 집단에 있었습니다. 2016년까지 연령 분포가 변화하여 20세에서 40세 사이의 젊은 집단 사이에서 뚜렷한 정점을 보였습니다.

뉴욕주의 C형 간염 근절 전략에 할당된 기금은 불균형하게 영향을 받은 인구, 특히 마약을 투입한 사람과 수감된 사람의 요구를 해결합니다. 주 정부 계획:

- C형 간염 환자를 관리 및 치료와 연결하는 주사기 교환 프로그램(Syringe Exchange Programs) 내에서 환자 탐색 프로그램을 구축할 것입니다.

- 약물 주입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C형 간염 치료와 공존하는 약물 보조 치료를 포함하는 혁신적인 C형 간염 치료 모델을 개발할 것입니다.
- C형 간염이 있는 수감자들이 수감에서 풀려나면 관리, 치료 및 지원서비스와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형사 사법 인구로 확대할 것입니다.
- 전염병을 추적하고 프로그램 개발을 알리고 C형 간염 근절 목표를 설정하고 관찰하기 위해 C형 간염 감시를 강화할 것입니다.

주 정부의 C형 간염 치료 역량 확대

Cuomo 주지사는 또한 뉴욕주 보건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Health)에 유해 감소 환경에서 1차 진료 면허의 승인을 위한 구체적인 요건을 설정하는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는 C형 간염 치료 제공자의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현장의 C형 간염 치료와 오피오이드 사용 장애에 대한 의학적 보조 치료의 가용성을 보장할 것입니다. 보건부는 또한 알코올 및 마약 오남용 서비스 센터(Office of Alcoholism and Substance Abuse Services, OASAS)와 정신건강부(Office of Mental Health) 허가를 받은 치료 제공자들이 C형 간염 치료를 포함하는 1차 진료를 그들이 돌보는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규정을 제정할 것입니다.

국가 최초로 유해 감소 서비스에 대한 메디케이드 배상 구축

메디케이드(Medicaid) 수당 및 메디케이드(Medicaid) 관리 의료 플랜은 2018년 7월 1일부터 유해 감소 서비스를 포함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시행하는 주는 뉴욕이 최초입니다. 이 변경 사항은 주류 메디케이드(Medicaid) 관리 의료 플랜,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 특별 요구 플랜(HIV Special Needs Plans), 건강 및 회복 플랜(Health and Recovery Plans)에 적용됩니다. 유해 감소 서비스는 뉴욕주 보건부(NYS Department of Health)가 승인한 주사기 교환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될 것입니다. 청구 가능한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진료 계획 개발(Development of a Plan of Care), 개인 및 집단 지원 상담(Individual and Group Supportive Counseling), 약물 관리 및 치료 순응 상담(Medication Management and Treatment Adherence Counseling), 정신교육 지원 단체(Psychoeducation-Support Groups). 이러한 조치들은 지속 가능한 수익을 제공하고 유해 감소 서비스와 C형 간염 치료를 제공하는 제공자의 역량을 갖추게 할 것입니다.

주사기 교환 접근 확대

주사기 서비스가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HIV)와 C형 간염 바이러스(HCV)를 줄이는 데 주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고려하면 C형 간염 바이러스(HCV)를 제거하기 위해 주사기 접근을 늘리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는 주 전역에 걸쳐 비영리, 종교, 지방 자치 단체가 주사기를 배포하고 수거하는 것을 허용하는 규정을 발표할 것입니다. 2단계 주사기 서비스에 대한 규정은 주사기, 교육 및 지원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고, 노숙자 보호소, 성수소자 센터(LGBTQ center), 성병 클리닉(STD clinic), 카운티 보건부 및 지역사회 기반 단체들이 C형 간염을 제거하는 것을 돕도록 합니다.

주 전체에 주사기 접근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서 확장 주사기 접근 프로그램(Expanded Syringe Access Program)에 등록된 약국이 처방전 없이 피하 주사기와 바늘을 이용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규제를 발표할 것입니다.

의료에 대한 보험 장벽 제거

주 정부는 사람들이 C형 간염 치료에 필요한 관리와 약물 접근을 어렵게 하는 예비 요건을 확인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 정부는 관리 의료 기관에 이런 C형 간염 치료에 대한 장벽을 없애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주 정부는 환자들이 치료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관리 의료 기관에 사전 승인 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사전 승인으로 인해 치료가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주 정부는 환자들이 C형 간염 치료를 계속하기 위해서 관리 의료 기관에 바이러스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요건 사항을 없애도록 할 것입니다. 어떠한 검사도 C형 간염 치료의 연속성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 정부는 관리 의료 단체가 C형 간염 환자를 치료하는데 원격 진료나 화상 회의 서비스를 사용하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배상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멀티미디어 인식 캠페인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는 모든 뉴욕 주민에게 다가가기 위한 일반적인 캠페인과 C형 간염에 걸린 위험이 가장 높은 인구를 겨냥한 표적화된 메시지로 구성된 C형 간염 바이러스 대중 인식(HCV Public Awareness) 캠페인을 시작할 것입니다.

보건부의 커미셔너인 **Howard Zucker**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사로서 저는 C형 간염이 가질 수 있는 해로운 영향을 직접 보았으며, 주 전역에 사례 건수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AIDS) 전염병의 퇴치를 위한 **Cuomo** 주지사의 노력은 잘 입증되었으며 C형 간염도 근절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속적인 전염병 종식 노력의 기반

이 발표는 2020년까지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의 확산을 막고 새로운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HIV) 감염 건수를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HIV) 관련 사망 건수보다 낮게 줄이며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사망률을 0%로 만들기 위한 뉴욕의 국가 주도적인 청사진을 강조하는 2018년 전염병 종식 경과보고서(Ending the Epidemic 2018 Progress Report) 발표의 뒤를 잇습니다. 주지사의 획기적인 청사진의 일부로, 뉴욕주는 아직 진단받지 않은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HIV) 환자를 파악하고 이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HIV) 역제를

극대화하고 뉴욕 주민이 건강하게 지내며 질병을 전염시키지 않도록 하며 예방
요법(Pre-Exposure Prophylaxis, PrEP)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뉴욕주는 이러한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빠르게 진보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종식
보고서(Ending the Epidemic report)는, 새롭게 진단받은 75%의 뉴욕 주민이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HIV) 양성 진단 30일 이내에 치료를 받은 증거를 포함하여 청사진이
개시된 이후 뉴욕주가 이런 놀라운 진보를 상세하게 보여줍니다. 실제로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HIV)를 앓는 뉴욕 주민의 80%가 진단받은 해에 치료를 받았다는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2016년에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HIV)를 진단받은 뉴욕 주민
70%의 바이러스가 억제되었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